

SK건설, 세계 최대 정유 증류탑 운송

SK건설은 세계 플랜트 역사상 최대인 정유 증류탑(Crude Column)을 울산항에서 선적해 1만1000km 떨어진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 항구로 실어 나르는 운송작전에 돌입했다고 9월8일 발표했다.

증류탑은 1개월간의 항해를 거쳐 10월 중순경 SK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UAE의 Ruwais 정유공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증류탑은 가열된 원유를 주입해 액화 천연가스(LPG)와 가솔린, 경유 등을 추출해내는 정유공장의 핵심설비이다.

길이는 아파트 36층 높이와 맞먹는 93.3m이고 무게는 45인승 대형버스 114대에 육박하는 1261톤으로 처리용량이 1.5리터 콜라 PET병 439만개 상당인 40만배럴에 달해 세계 플랜트 역사상 최대 크기와 처리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정진철 SK건설 사업지원부문 전무는

“UAE의 Ruwais 정유공장 신설공사는 국내 건설기업들이 수주한 초대형 프로젝트로 국내 건설기업과 플랜트 장비, 운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SK건설은 2009년 11월 Ruwais 정유공장 프로젝트 중 정유공장의 핵심 설비인 원유정제설비(CDU)와 주변 설비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를 21억1700만달러(약 2조2000억원)에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1/09/08>